“만해 스님이 선학원 설립?…의도적 날조 우려”

김광식 교수, ‘선학원 어제와 오늘’ 세미나서 주장

송지희 기자 jh35@hyunbul.com

“선학원이 만해 스님을 설립조사로 주장하기 시작한 것은 불과 4~5년 전부터다. 역사를 뒤집고 왜곡하는 수준은 대단히 우려스럽다. 선학원과 조계종과의 분열이 아니었다면 이런 주장이 나오지도 않을 것이라 판단하고 있다.”

김광식 동국대 특임교수가 5월 12일 덕숭총림 수덕사와 선학원정상화추진위원회가 주최 · 주관한 ‘선학원의 어제와 오늘’ 세미나에서 선학원의 설립조사 문제와 관련해, “명백한 역사왜곡”이라고 지적했다.

김광식 교수는 재단법인 선학원이 만해 스님을 설립조사로 주장하며 선양하는 문제와 관련, 이미 선행논문을 통해 만해 스님이 선학원 설립조사가 아님을 밝혀왔다. 창건 당시 감옥에 수감돼 있었고, 선학원 상량문에 만해 스님이 포함돼지 않았다는 점 때문이다.

이날 김광식 교수는 후속연구를 통해 확보한 자료 가운데, 특히 1951년 선학원이 범어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판결문을 근거로 만해 스님의 선학원 설립조사설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해당 소송은 범어사의 덕성학원 매각을 계기로 촉발됐다. 당시 선학원은 해당 재산이 1934년 범어사가 선리참구원에 기부하기로 했다는 점을 근거로 선학원의 재산임을 주장했고 재산 회수를 위한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1심 판결에서 기부행의가 실질적으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취지로 범어사의 손을 들어줬으나, 2심에서는 원심판결을 뒤집어 선학원이 승소했다.

김 교수는 선학원 前이사장 법진 스님이 4~5년 전부터 만해 스님이 선학원 설립조사임을 주장하기 위한 근거로 이 소송의 2심 판결문을 활용하고 있음을 지적한데 이어, 새롭게 입수한 대법원 판결문을 근거로 이를 반박했다.

김 교수에 따르면 법진 스님이 만해 스님을 선학원 설립조사로 주장하는 근거는 2심 판결문 가운데 ‘만해 스님이 감옥에서 복역하다가 1921년 12월 출옥한 후, 만해 스님을 중심으로 사판계에 대응하는 이판계의 수도원을 창립했다’ 는 내용이다. 사실상 법진 스님은 이 판결문에서 만해 스님의 출옥 이후에 선학원 건립이 추진됐다는 내용을 토대로 주장을 펼치고 있다는 설명이다.


덕숭총림 수덕사와 선학원정상화추진위원회는 5월 12일 ‘선학원의 어제와 오늘’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만해 출옥 前 선학원 설립 합의
“찬동 서명 21명, 조계종 스님들
선학원·조계종 동질 집단 인정”

그러나 김 교수는 “상량문 등에 따르면 만해 스님은 선학원 창건에 사실상 관여하지 않았고 만해 스님의 출옥 이전에 이미 선학원의 건립취지가 합의됐고 공사도 완료됐다”며 “기록상으로도 2심 판결문 외에 선학원 설립과 관련한 만해 스님의 행적은 전무하며 최종 판결문에도 이 같은 내용을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이어 “만약 법진 스님의 주장이 타당하다면 선학원의 공식적인 창건 시점도 1921년이 아닌 1922년으로 후퇴해야 하며, 이는 지난 100년간 공인돼 온 선학원 역사가 그 기원에서부터 부정을 당하게 된다”며 “최소한 설립조사로 인정되려면 물질적인 불사나 정신적인 불사에 기여 했어야 하지만 만해 스님의 행적을 살피면 해당사항이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교수는 “대법원 판결문을 살펴보면 오히려 만해 스님이 설립조사가 될 수 없는 정황이 2심 판결문을 반박하는 범어사측 주장에서 상당수 확인된다”며 “대표적으로 2심 판결문에서 만해 스님의 화주보살로 언급됐던 ‘최창운’이라는 보살이 실제로는 백용성 스님의 신도이며, 이를 입증하는 사료들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점이 대표적”이라고 설명했다.

최창운 보살은 실제 백용성 스님의 사료에 다수 등장하는 반면, 선학원 창건을 후원한 신도명단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

나아가 김 교수는 “법진 스님은 대법원 판결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만해 스님을 설립조사로 주장하기 위해 2심 판결문 일부 문장만을 적출해 논고를 서술하는 등 자신의 논리(목적)을 위해 활용한 것”이라며 “본인이 1999년 선학원 분원장회의에서 강의를 할 때 만해 스님을 설립조사로 적시하지 않았음에도 아무런 이의가 없었고, 선학원이 만해 스님을 설립조사로 주장한 것은 조계종과 관계가 틀어진 후인 4~5년 전부터라는 점에서 선학원은 재산관리의 입장에서 만해 행적을 활용하고 있다고 본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김 교수는 “최근 선학원이 만해 스님을 강조하는 것에는 선학원과 범어사 · 수덕사가 법정소송을 한 이력, 선학원을 상징했던 고승(오성월, 백용성, 만공 스님)이 수덕사 출신인 점, 만해 스님의 민족운동 행적이 선학원의 정체성 홍보에 유리한 점 등에 있다고 본다”며 “그런데 표방을 위한 역사 만들기로 보기에는 실제 역사적 내용을 넘어서는 지나침이 있기에 상당한 왜곡”이라고 지적했다.

1967년부터 선학원 이사장 소임을 맡았던 대의 스님의 행적을 통해 당시 조계종과 선학원의 관계도 재차 짚었다.

김 교수는 “대의 스님은 취임일성으로 수행을 기본으로 하는 선학원 운영노선을 발표하고 당대의 고승들에게 동의를 받은 기록이 있는데, 찬동문에 서명한 21명의 스님 모두가 조계종단의 큰스님들이었다”며 “이는 곧 선학원과 조계종단이 동질적인 집단임을 말해주는 것이며 당시 선학원 분원의 주지(분원장)은 조계종 승려로만 발령한다는 이사회 결의 사항이 이를 뒷받침한다”고 말했다.

진제 前 종정예하, 세계평화 천도법회 연다

진제선세계화회 · 韓불교문화協
6월12일 부산영도 아미르공원서
우크라이나 전쟁 희생자 ‘천도’
수익금 불우 이웃 · 난민에 기부



조계종 前종정예하 진제 법원 대종사 〈사진〉가 코로나19와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희생된 사람들을 천도하고 세계평화를 기원하는 법석을 펼친다.

(사)대한불교조계종진제선세계화회와 (사)한국불교문화협회는 “오는 6월 12일 오후 1시 부산 영도구 국립해양박물관 옆 아미르 공원에서 세계평화와 국태민안을 기원하는 ‘국제무차수륙천도대법회(이하 천도법회)’를 불자와 시민 등 10만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봉행한다”고 5월 18일 밝혔다. 천도대법회는 금정총림 범어사와 팔공총림 동화사, 해운정사, 발원사가 주관 사찰로 참여한다.

조계종 13 · 14대 종정을 역임한 진제 대종사가 증명법사로서 나서는 천도법회는 국내 최고 권위의 무형문화재 스님들의 수륙대재와 함께 100여 명 남방 상좌부 스님들의 염불(Chanting), 3사 7증계사스님들이 영가들에게 계(戒)를 내리는 영가수계식, 전국불교연합합창단 1000명의 추모합창 등이 진행된다.

진제 대종사는 천도 법문 후에 “지구촌의 모든 인류가 대립과 갈등을 극복하고 화해와 평화의 세계로 나아가자”는 내용의 평화 메시지도 발표할 예정이다. 법회에는 UN사무총장과 한국 주재 200여국 외교관들도 초빙되며, 전 과정은 동시통역으로 진행된다.

이번 천도법회에는 코로나19로 사망한 1500만 영가들의 위패를 국가별로 한 위패씩 특별제작하며 각종 재해와 전쟁, 산업재해, 범죄피해 등으로 목숨을 잃은 고혼을 가리는 위패도 봉안된다.

진제 대종사는 “전 세계적 유행한 코로나19 감염병으로 1500여만 명이 사망했고, 우크라이나 전쟁으로도 수많은 생명이 희생되고 있다”면서 “이들 영가를 인도하기 위해 천도대법회를 구상했다”고 법회 개최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1700여 년의 유구한 한국불교 역사에서 왕실과 국가는 사찰, 민간과 더불어 국태민안을 기원하는 천도법회를 봉행해 나라와 백성의 안녕을 기원해 왔다”면서 “최상승의 간화선법으로 일체의 희생영령들을 천도해 안으로는 국태민안을 밖으로는 세계평화를 이루는 계기를 만들겠다. 사부대중들의 많은 동참을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법회 접수 동참금은 영가 1위당 1만 원으로, 수익금 전액은 우크라이나 전쟁 난민지원 및 국내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기부된다. (051)746-2256

신성민 기자

태고종 봉원사, 우크라이나 평화 위해 영산재 봉행

6월 6일 오전 10시~오후 5시까지 대면 공연으로 진행

한국불교 태고종 신촌 봉원사 소속의 영산재보존회가 6월 6일 현충일을 맞아 봉원사 마당에서 영산재를 봉행한다.

올해로 34회째를 맞는 봉원사 영산재는 세계평화와 국가안녕을 주제로 열린다. 특히 지난 3년간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비대면 형식으로 진행된 영산재를 올해는 불자 및 일반 관람자를 위해 대면 공연으로 진행한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봉원사 주지 원허 스님(영산재 보존회장)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피해 입은 희생자와 전 세계적으로 대유행인 코로나19로 피해 입은 희생자 등의 영혼을 위로하며,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종식돼 마스크 없는 생활을 할 수 있는 세상이 되길 발원한다”며 “아울러 이번 영산재는 우리나라의 물가 안정 등 국가 안녕을 발원하는 취지도 담겨 있다”고 5월 17일 밝혔다. 1973년 국가무형문화재 제 50호로 등록된 영산재는 한국의 전통 종교인 불교와 한민족 고유 정서가 어우러져 수백년째 전승된 국내 최대의 전통 불교 의식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특히 지난 2009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됨으로써 명실공히 한국 전통불교의 우수성을 입증해는데 큰 기여를 했다. 또한 영산재는 석가모니가 영취산서 행한 설법인 영산회상을 재현한 것으로 영혼을 천도하는 불교 전통의식 가운데 하나다.

봉원사 주지 원허 스님은 “코로나 상황이 좀 더 나아진다면 내년에는 6 · 25 참전비가 있는 해외에서도 영산재 행사를 봉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주일 기자

나눔의집, 사외이사 3명 선출…정상화 총력

5월13일 임시 이사회서 결정
총 11명 정식 이사 체제 구축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 쉼터 나눔의집의 법인이 사외이사 3명을 선출하고 정식이사 체제를 구축했다. 1년 넘게 지속된 이사회 파행 운영이 정상화 수순을 밟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나눔의집은 5월 13일 관내 교육관에서 임시 이사회를 개최하고 광주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추천한 9명 가운데 3명을 사외이사로 선출했다. 이날 선출된 이사는 김현덕 한국곰두리봉사회 중앙회장과 박종성 행정동우회 자문위원, 이동섭 강남노인종합복지관장이다.

3명의 사외이사로 선임으로 총 11명 정식이사 체제를 구축하게 된 나눔의집은 5월 25일 오후 3시 개최되는 차기 이사회에서 대표이사 선출 등을 다뤄 운영 정상화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한편 상임이사 직무대행 혜일 스님과 최종환, 윤장숙 이사는 이날 임시이사직에서 물러났다. 임은호 기자

백만원력 결집불사

희망의 불교,
미래의 불교를 함께 열어갑시다.

백만원력 결집불사

- 인도 부다가야 한국사찰 분황사 건립
- 육·해·공군본부 계룡대 호국 홍제사 건립
- 불교요양원 건립
- 경주남산 열암곡 마애부처님 바로 모시기
- 세종시 광제사 및 한국불교문화 체험관 건립
- 불교문화유산보존센터 건립
- 10.27법난 명예회복을 위한 기념관 건립
- 조계종 총본산 성역화 불사 기금 조성
- 위례 상월선원 신축불사
- 나눔 및 교육기금 조성

대한불교조계종


●인도 부다가야한국사찰 분황사 건립


●육·해·공군본부 계룡대 호국 홍제사 건립


●세종시 광제사 및 한국불교문화 체험관 건립



●경주남산 열암곡 마애부처님 바로 모시기

모연동참안내

백만원력결집불사, 대한불교조계종 검색

NAVER daum

www.buddhism.or.kr

▶매일 발우저금통에 보시

▶정기후원(CMS) : 신청서 또는 전화신청

▶후원계좌 예금주 : 재)아름다운동행(백만원력결집)
농 협 301-0248-0882-41
국민은행 008601-04-152458
우 체 국 010579-01-005480

▶ARS 060-700-0012(한통화 3,000원)

▶문의전화 02)6273-0108, 0109

• 모아진 발우저금통은 재적사찰 또는 문의전화로 상담해주세요.
• 재)아름다운동행은 대한불교조계종에서 설립한 기부재단이므로 백만원력결집 공식 모금창구입니다.